

Wildflower Letter

들꽃편지 691

2026.8.7.입추

<https://cyw.pe.kr>

이상한 다리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다리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거나
나 짜-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듭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
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는 자
그마치 1,116억 원이나 들여서 만든
동그란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세종대
왕이 한글을 반포한 연도를 의미하는
1,446m 길이의 커다란 다리입니다.

시청 홈페이지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금강 위에 이웅다리(금강보행교)를 건
설한 목적은 금강 북측의 ‘중앙녹지공
간’과 남측의 ‘수변공원’을 연결해 시민들에게 산책과 휴식을 위한 여가 공간을 제
공하기 위함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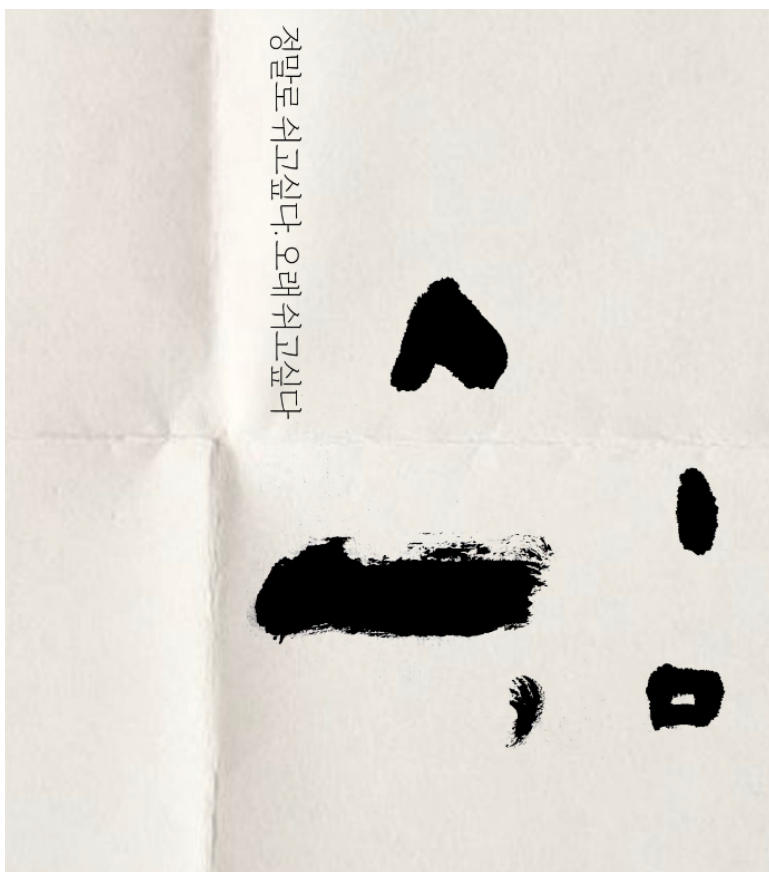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씩 까막까치가 만든 오작교(烏鵲橋) 다리에서 만나 열
째안고 눈물을 흘린다는 칠월칠석은 양력으로 치면 입추(立秋)와 맞물려 다가오는
절기입니다. 매미가 악을 쓰는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갑자기 가을이라고? 그렇습
니다. 여름은 갑자기 기가 꺾입니다. 우리가 더위와 싸우고 있는 그 날 밤하늘을
바라보면 북두칠성이 기울어 있고 동쪽에 직녀성과 서쪽에 견우성이 서로 마주 보
는 정겨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옛날 사람들은 ‘견우와 직녀’의 전
설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리스도야말로 ‘다리’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
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돌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엡2:14)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다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하
나님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다리
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웅다리를 한 바퀴 돌고 와서 글을 쓴 최용우 올립니다.



□ 느낌



정말로 쉬고 싶다
오래 쉬고 싶다
쉽

글씨-이산

<https://www.instagram.com/leesanschool/> 이산글씨학교

공로패

참된 주의 종은 입에서,
“저는 아무 한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저에게는 아무 공(功)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다.

어디서 감히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
스스로 우쭐거린단 말인가?
바울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평생 공로패 한 장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회개82 풍성한 음식 앞에서

아파트 경비 일을 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홀로 도시락을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먹어야 일을 할 힘이 나기에 어느 때는 컵라면 하나 사서 푹푹 말아먹고 한 끼를 때울 때도 있습니다.

공장 경비원이나 건설회사 경비원으로 일하면 식당이 있어 하루 세끼 따뜻한 밥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데 나이 70이 넘으니 오라고 불러주는 곳도 없습니다.

오늘도 점심을 먹습니다. 집에서 싸 온 도시락을 펴고 먹으려고 잠시 기도하니 깜짝 놀랄 천둥같은 음성이 마음속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너 가자지구로 가서 밥 먹어 볼래?”

이스라엘 가자 지구는 지금 전쟁터입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 난방 전화 다 끊어지고 먹을 음식은 커녕 물조차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수많은 폭격으로 잠잘 곳조차 없고 하루하루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의 나날이라고 합니다.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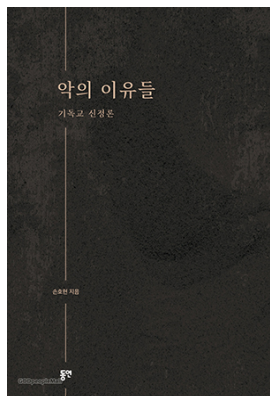
“주님,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음식 앞에서
불평만 하였습니다.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제산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셨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세요?”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거, 괜찮은 것 같네요.

악의 이유들-기독교 신정론



손호연

689쪽 29,000원

동연 2023.8.14발행

이 책은

구결하는 심정으로

어둠을 응시하며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고자

한 시도였다.

1. 신정론

기독교 신정론(神正論, theodicy)이란? 기독교의 신은 절대적 선(善)의 초월자로서 전능하시고 완전하시며 우주 만물과 모든 세계사를 지배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분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왜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변증하는 신학적·철학적 논의를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2. 무신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시14:3)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무신론(無神論)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善)과 악(惡)'은 어디에서 왔는가? 신이 없다면 악을 설명할 필요도 없는가? 무신론은 신이 없다는 핑계로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3. 다신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신5:7)는 계명은 다신론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신관은 '다신론적'이었고 '태일신론'을 거쳐 '유일신론'으로 점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편 82편은 최고신(神)인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임무에 태만한 다른 신들을 심판하고 전 세계를 홀로 다스리는 유일신론을 확립했다고 합니다.

4. 악마론

“악마 없이는 하나님도 없다”(제르리 러셀) 1700년대, 우주가 두 개의 동일하게 영원한 능력자들 곧 선과 악의 주관자들이 싸우는 전쟁터라는 견해가 생겼는데, 그것을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영지주의자, 마니교, 바빌론 종교, 그리고 심지어 현대 기독교 안에도 이원론이 들어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세상(마귀)은 악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5. 분열 인격론

‘악마론’은 선악의 대립을 하나님의 바깥에서 찾은 반면에, ‘분열 인격론’은 선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내재하는 일종의 심리적 분열이라고 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사45:7) 어둠도, 환란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6. 자유의지 신정론

“슬퍼하는 인간이 행복한 벌레보다 낫다.” 자유의지 신정론(自由意志 神正論 free will theodicy)을 한마디로 요약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입니다. 크랜쇼는 “인간은 자유롭게 범죄하고 하나님은 정의롭게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의 무게를 드러내는 자유는 어떤 이론 하나로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7. 교육적 신정론

존 히크(John Hick)은 “악의 골짜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교육적 방법 때문이다”라며 교육적 신정론(?有的神正論 educative theodicy)을 주장합니다. 악의 기원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책임 없음’을 강조했다면 존 히크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8. 내세적 신정론

악으로서의 죽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은 내세적 신정론(來世 的神正論 afterlife theodicy)입니다. 영혼이 불멸한다면 그리고 불멸하는 영혼이 거주할 정의로운 내세가 있다면, 또한 현세의 지연된 정의가 내세에서는 올바르게 실현될 것이라는 종말론적 희망은 우리가 불의한 현실을 견디어 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9. 역사적 신정론

헤겔의 역사적 신정론은 종말론적 신정론을 거부합니다. 그는 ‘신정론은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옹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야 하는 시공간은 내세가 아닌 현세이며, 천국이 아닌 인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헤겔은 이러한 시간의 변

증법, 곧 역사의 과정 전체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해석합니다.

10. 교제의 신정론

그린(M. Green)은 고통의 긍정적 가치를 강조하며, 고난 자체가 “하나님과의 직접적 관계, 하나님과의 협력, 나아가 하나님과의 합일적 교제의 계기”가 된다고 하는 교제의 신정론(交際的神正論)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에게 더 가깝게 만드는 길이 고통을 통한 그와의 교제라며 일종의 종교적 위안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11. 대속적 신정론

교제의 신정론 중 ‘고난과 타자를 위한 고난’을 확장한 것이 대속적 신정론(代贖的神正論)입니다. 본회퍼와 몰트만은 “오직 이런 고통당하는 신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대속적 신정론은 그러한 교리적 페르다임 안에 이미 존재하는 기독교인들에게만 설명이 가능한 신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 기독교적 신정론

메릴린 아담스(M M Adams)의 기독교적 신정론은 “고난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협력과 교제를 위한 가장 강렬한 기회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하나님이지 기에 고난이란 신앙인에게 자신의 창조주를 모방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의로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한다.”

13. 민족적 신정론

함석헌의 신정론은 ‘민족적 신정론’입니다. 함석헌은 조선 민족의 집단적 고난이 세계를 위한 ‘대속적 고난’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의 죄를 대신 짚어 진 고난의 역사를 겪었으며 그렇기에 조선 민족은 일종의 집단적 예수로서 대속적 고난의 담지자이다...라고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저서에서 주장합니다.

14. 함석헌 신정론

함석헌은 ‘자유지의 신정론(응보의 신정론)’, 교육적 신정론, 역사적 신정론, 교제의 신정론(대속의 신정론)들 여러 신정론을 혼종적, 절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함석헌은 “기독교가 결코 유일한 진리도 아니요, 참 사관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진리가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식으로 나타났을 뿐이다.”라고 합니다.

15. 예정의 신정론

하나님이 만물을 예정하며, 인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있는 ‘예정’의 신정론(定的神正論 theodicy of predetermination)’은 고통과 죽음과 악이 예정의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토기장이에게 비교하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롬9:21) 하고 묻습니다.

16. 과정 신정론

악의 문제는 기술적 형이상학(記述的形而上學)의 문제인데 형이상학적 상황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면 실재는 그 투명성을 잃게 되고, 하나님 존재의 이해 가능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됩니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A N Whitehead) 는 이러한 기술적 형이상학으로서의 신정론을 ‘과정 신정론(process theodicy)으로 구성하려고 시도합니다.

17. 무악론

악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악론(無惡論)은 기독교 지성사에서 매우 일찍부터 발전되어 온 전통입니다. 마니교와 같은 선악의 이원론에 대항하여 오리게네스, 바실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들은 ‘선의 결핍(privatio boni)’으로서의 악이라는 교리적 전통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악은 존재가 아닌 반면 선은 존재이다.”

18. 신정론 없는 위안

진정한 위안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면 종교적 상인들은 “왜?”라는 질문을 청원의 기도로 만들려 합니다. 여기에 대한 에크하르트에의 대답은 “하나님은 목적론적 ‘왜’가 없다” 만물은 왜(a Why)가 있지만, 하나님은 왜가 없습니다.(no Why) 장미는 그저 꽃이 피기 때문에 피어날 뿐입니다.

19. 논리적 신정론

논리적 신정론(論理的神正論logical theodicy)은 전통적 신정론의 여러 형태와 중복되지만, 그럼에도 변증의 핵심에 논리적 모순이 없는 설득력이 자리하는 신정론을 선별하여 가리킵니다. 종교적 신정론이 논리적 성격을 지닐 수도 있지만, 반대로 논리적 신정론이 반드시 종교적이지는 않습니다.

20. 미학적 신정론

미학적 신정론(美學的神正論aesthetic theodicy)이란 미학적 가치를 통해서 악의 문제라는 교리적 난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인간의 예술적 창

조의 경험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예술가의 창조와 감상자의 향유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악과 고통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시도입니다. ‘아름다움이 악을 극복할 것이다.’

21. 기술적 신정론

악과 고통이 종교적 문제만이 아니라 기술의 문제라고 보는 견해가 기술적 신정론(技術的禪正論 technological theodicy)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 질병과 장애 그리고 죽음이라는 궁극적 부조리 등등 인류가 경험하는 혹은 경험하기 두려워하는 악과 고통은 신이라는 종교적 관점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2. 성서적 신정론

하나님만이 인간의 영혼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인간 영혼이 지닌 존엄성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판넬베르크는 “인간 존엄성의 근거는 인간이 지닌 어떤 내재적인 특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에 있는 것이다.” 인간의 영혼은 그 기원(origin)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존엄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23. 체계의 신정론

기독교의 ‘하나님의 경세에 대한 교리’는 체계의 신정론에서는 ‘합리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이며 현실적인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라는 개념적 인식으로 이해됩니다. 헤겔은 “체계가 없는 철학은 전혀 학문적일 수 없다”고 합니다. 논리학, 자연철학, 정신철학이라는 그의 체계의 신정론은 감정의 언어를 개념의 언어로 표현합니다.

24. 나그네 신정론

칼 바르트는 “모든 신학은 나그네 신학(theologia viatorum)이다”라고 합니다. 악의 이유들, 곧 창조의 질서를 무화 시키려는 제3의 이질적인 요소를 언어가 체계화할 수 없고, 체계의 내재적인 요소로 포섭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악은 우리를 체계 없는 나그네로 만듭니다. 나그네 신정론은 오직 체계에 대한 해체로만 존재합니다.

25. 무의 신정론

에크하르트는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무로서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하늘로부터 빛이 자신을 둘러싸는 것을 경험하며 땅에 엎드립니다. 뒤이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 그는 ‘무(Nichts)’를 본 것입니다. 바울은 ‘무(ein Nichts)’의 하나님을 만난 신비를 경험한 것입니다.

〈요약/최용우〉

보석

코스트코
매장에는
3억원짜리
보석이 있네.

왜 3억원인지
봐도 모르겠네.
나는 보석을 보는
눈이 없네.

최용우 제13시집<일상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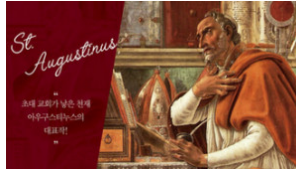


시작노트/ 정확히는 294,900,000원!
내 눈앞에 있는 보석을 보면서도
저게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도 모르겠다.
코스트코가 가끔 사람을 놀라게 한다.

최용우 1-18시집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최용우 시집 일상의 노래	우리의 삶이 하늘을 날으며 즐겁게 노래하는 새처럼 반쯤은 비워진 살이기를...	일상의 노래	최용우 지음	210쪽(컬러)15000원 퍼플
 최신간 일상의 산책	핸드폰을 집에 두고 산책을 하면 세상이 맑고 밝고 조용해요	일상의 산책	최용우 지음	210쪽(컬러)17000원 퍼플

아담의 원죄와 예수의 구원



387. 성적 행위에서 볼 수 있는 욕정의 악

욕정은 신체에 대해서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큰 힘을 드러내 영혼의 욕망을 육신의 요구와 연결하고 뒤섞어서 인간 전체를 혼돈다. 그 결과 신체 쾌락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쾌락이 생겨나 절정에 달한 때에는 생각이 멈추고 사유의 경계심이 거의 사라져버리게 된다.

388. 최초 인간은 옷을 걸치지 않았다

우리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범위가 저질러진 뒤에는 그 신체 부분들을 부끄러운 것들, 곧 치부(恥部)라고 불렀다. 성경에서도 ‘아담과 이브는 알몸이면서도 서로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창2:25) 그들이 벌거벗은 줄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알몸 상태가 아직 부끄럽지 않았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의지가 없을 때 정욕만으로 신체가 움직이는 일이 없었고, 신을 거역하는 인간의 불순종을 몸이 증명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389. 육체적 관계의 부끄러운 감정

욕정을 동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에는 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밀실을 찾아 벌이는 불륜뿐만이 아니라 땅에서의 합법화된 음행도 있는데, 이 또한 사람들 눈을 피해서 저지른다. 벌 받을 걱정이 없는 허락된 음행도 세상의 눈을 피해 숨을 곳을 찾는다. 더욱이 창녀촌에서도 남들에게 보이 기에는 수치심을 느껴 은밀한 장소를 마련해 둔다. 간통은 그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조차도 부끄러운 행위라고 말한다. 자연 본성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일인데도, 원죄라는 형벌에서 비롯된 수치감이 따르기 때문이 아닌가?

390. 분노와 욕정은 죄를 저지르기 전 인간에게 없었다

인간의 영혼 안에서 분노와 욕정을 영혼의 악덕이라고 한 이유는 이런 감정들은 뒤섞여 혼란스럽게 움직여서 지혜가 금지하는 행동까지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도 있는 정신과 이성으로 욕정을 억누를 필요가 있다. -(계속)

특별계시



1. 특별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啓示 Revelation)라고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보편적인 계시를 ‘일반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계시로 다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특별계시’ 또는 ‘사적계시’라고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보여줘 봐. 그럼 믿을께.”하고 반문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주머니에서 꺼내 보여주는 물건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출33:20)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 주셨습니다.”(쉬운성경요한복음1:18)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특별계시는 ‘성경’이라는 형태의 기록으로 남아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언어로 가장 많은 부수가 인쇄되어 다양한 형태로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방법(하나님의 임재)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인데,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적계시’라고 합니다. (8420)

2.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특별계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늘 똑같은 방식으로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은 상황에 따라 매번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나타내심’, ‘계시하심’, ‘드러내심’, ‘알게 하심’, ‘선포하심’, ‘가르치심’ 등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특히 ‘말씀하심’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창1:3).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그 입의 기운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시33:6).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명령하시면 그것이 굳게 견고히 서게 됩니다.(시33:9). 주의 음성이 물 위에 있고, 천둥소리로 울리며, 백향목을 꺾으시고, 사막을 진동하게 하시며,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시 29:3-9, 시104:7, 사30:31, 사66:6) 성경은 ‘창조’와 ‘섭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묘사할 때 ‘말씀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하시고, 의식이 있으시며, 사유하는 존재이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어 문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에게 ‘말씀하심’이라는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신이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타 종교에서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계시’는 신적인 요소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에게는 ‘종교’이며 종교는 인간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8421)

3.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특별계시는 ‘말씀하심’이라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전달됩니다. 일반계시와 특별계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추론해내도록 의도하지만, 특별계시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일반계시에서 자신을 찾도록 자극하시고(행17:27), 찾지 못하면 그것으로 변명할 여지가 없게 하십니다.(롬1:20)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인간을 직접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사실은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거기에 있음’(현존성)과 ‘항상 그렇게 있음’(항존성)을 가지신 분이시니 옆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니까 알아볼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해야 맞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온 세상에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특별히 드러내실 때는 ‘말씀하심’으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하얀 수염을 휘날리면서 산신령같은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의 첫 구절은 예언자들과 아들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전체를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요약하면서 동시에 이 계시는 ‘여러 시대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계시는 한꺼번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고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방법’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말씀을 받아 모은 것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기대하며 기다릴 때,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8422)

4.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특별계시는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며, 명령하셨다.’라고 성경에 무수히 나옵니다.(창2:16-18, 창12:7, 창13:14...) 그러나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성막 위에서, 지성소 안에서, 사막에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 속에서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또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또한 제비뽑기(잠16:33)나 돌판(출31:18, 출23:16)이나 우림과 둠뎀(출18:30)과 같은 도구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간들의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출19:9, 신4:33, 신5:26, 마3:17, 벰후1:17)

이와 같은 객관적이고 외적인 계시의 수단들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나타내심’의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臨在 presence)’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성경의 인물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임재’의 방법으로 나타나셨다는 수많은 객관적인 자료들과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와 기독교는 ‘임재’를 신비주의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재(presence)는 히브리어로 ‘파님’ 헬라어로는 ‘코람데오’인데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face)’ 혹은 ‘하나님 앞(before)’으로 번역했습니다. 임재를 ‘하나님의 면전(面前)’ 또는 ‘하나님의 안전(眼前)’ 또는 ‘하나님과 대면(對面)’으로 번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임재의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특별계시를 하셨습니다.(8423)

5. 기적으로

하나님의 특별계시는 인간들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임하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초현실적인 현상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기적을 믿어?”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과 유물론자들이 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의식과 의지가 있고, 전능하신 존재로서 모든 능력과 법칙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시고 편재하시는 능력으로 만물을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인 이시고 소유주이시며, 왕이시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 무한한 생명과 능력의 충만함을 보존하고 계시며 그것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놀라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창18:14).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마 19:26) 하나님은 태초에 만물의 제1원인 이셨으며, 모든 피조물의 첫번째 원인은 항상 하나님이시고 오로지 하나님뿐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이 구별되기는 하지만 결코 분리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히 독립된 존재이시지만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으시며, 오히려 인간들이 그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존재합니다.(행17:28)

하나님에 대해 유신론적 토대 위에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연과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행위이고 사역이며 ‘기적’입니다. 만물 안에서 작용하는 동일한 신적인 능력이 ‘특별하게 드러난 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8424)

6. 현현과 영감으로

하나님의 특별계시는 왜 필요할까요? 만약 사람이 에덴동산에서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계시같은 것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하여 죽기 이전의 사람은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①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주로 심판과 예언과 구원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②신약에서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고 그것이 ‘성경’의 형태로 기록되었습니다.

③성령님이 오신 후에는 성령의 친교를 통하여 아들 안에서 주어진 아버지의 계시를 믿고 고백하는 교회가 생겨났고, 교회를 통해서 중생과 회심이라는 영적인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④사도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은 줄 알았던 분께서 살아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증언하셨습니다.

⑤초대교회와 교부시대에는 사막광야에서 수도의 끝판까지 도달한 영적인 거장들에 의해서 인간 내면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적 계시를 꿈, 환상 혹은 비전(민12:6, 신13:1-6)이라 하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의식에 개입하는 것을 현현(顯現 manifestatie), 또는 영감(靈感, inspiratie)이라고 합니다.

⑥요즘에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까지 계속 될까요? 성경의 증언은 시대의 마지막 종말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신천신지를 여실 때 거기에 들어갈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계시는 계속된다고 합니다.(8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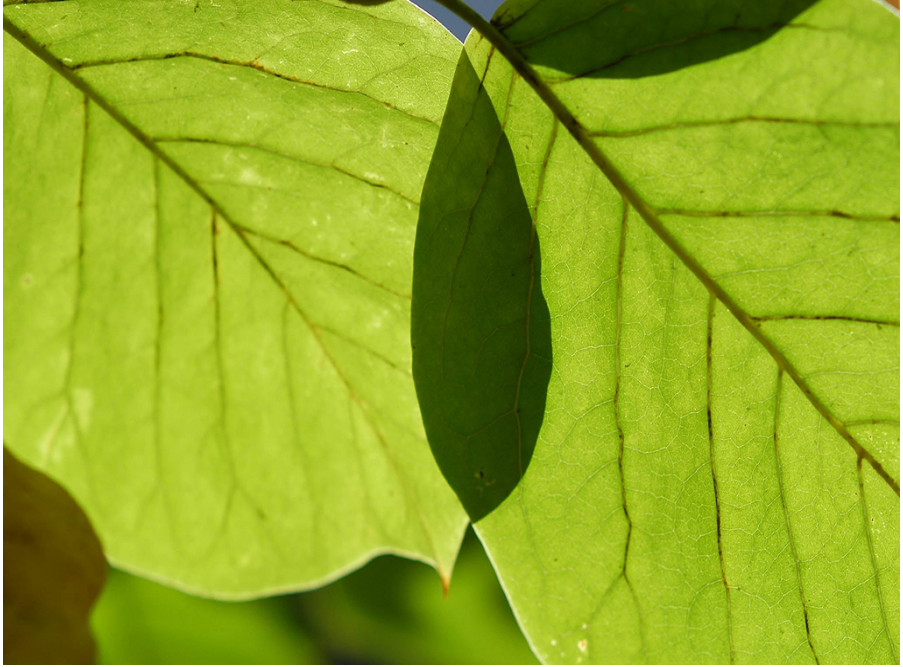
©최용우

햇볕같은이야기 <https://cyw.pe.kr>

그동안 쓴 글을 모은 300-350쪽 내외의 책 총27권 중

2026년 현재는 14권을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 1.〈가슴을 짝 펴라!〉 308쪽 11600원 <https://c11.kr/06yw>
- 2.〈다시 벌떡 일어나라〉 336쪽 12400원 <https://c11.kr/07yw>
- 3.〈정정당당 잘 살자〉 336쪽 12400원 <https://c11.kr/08yw>
- 4.〈예수 잘 믿는 비결〉 326쪽 12100원 <https://c11.kr/09yw>
- 5.〈가장 큰 선물〉 326쪽 12100원 <https://c11.kr/010yw>
- 6.〈인생 최대의 행복〉 316쪽 11800원 <https://c11.kr/012yw>
- 7.〈나도 할 말 있다 나옹〉 318쪽 11900원 <https://c11.kr/016yw>
- 8.〈하나님의 얼굴〉 326쪽 12100원 <https://c11.kr/018yw>
- 9.〈예수님을 따르는 삶〉 328쪽 12200원 <https://c11.kr/023yw>
- 10.〈예수 나의 형통〉 330쪽 12200원 <https://c11.kr/027yw>
- 11.〈하동-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320쪽 14300원 <https://c11.kr/031yw>
- 12.〈예동-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326쪽 14600원 <https://c11.kr/039yw>
- 13.〈성동-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318쪽 15000원 <https://vo.la/xYamE>
- 14.〈회동-주님과 화동하는 삶〉 316쪽 17000원 <https://vo.la/Stw2wwe>



푸른 잎사귀 (사진:한희철)

선 넘지 마라

흐린 날씨라 금강독을 천천히 걸었다. 온통 사방은 풀과 나무로 우거져 푸르고 푸르다. 걸으면서 듣는 유튜브 뉴스에서 서울의 배재고와 광주일고가 야구 경기를 하는데,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일고 팀 앞에서 광주와 5.18을 조롱하는 응원을 했다는 뉴스로 시끌썩 하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있다. 대통령을 욕해도 누가 잡아가지 않는다. 그런데 그 표현의 자유가 '무엇이든 다'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아니다. 우리는 지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최소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노 '선'이 있는 것이다.

힘 있는 권력자들은 얼마든지 조롱해도 되지만, 국민 가운데서 특별한 아픔과 사연을 가진 약자와 피해자들을 함부로 모독하고 조롱하면 안 된다.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인 광주와 5.18은 건들지 마라. 그 누구도 그들을 조롱할 자격은 없다. 특히 배우는 학생들은 그런 것 배우면 더더욱 안 된다.

건빵 나눠

산행을 하다가 잠시 쉴 때 에너지 보충 하시라고 일행들에게 ‘양갱’을 하나씩 나누어 준다. 양갱은 한천으로 만들어져 탄수화물이 풍부하며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하기 아주 좋은 등산 필수 행동식이다.

그런데 장사꾼들이 양갱을 대체할 ‘에너지바’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하나에 2천원~3천원 가격이 너무 부담이 되었다. 양갱이나 에너지바를 대체할 싸고 맛있는 행동식을 검색하다가 50봉지에 1만원 하는 ‘보리건빵’을 찾아냈다. 그리고 한 박스 사서 책방에 거꾸로 얹어놨다.

청소를 하던 아내가 발견하고는 “매날 이런 걸 먹으니 배가 나오지” 하면서 싹 압수해 가버렸다. “그거 내 간식이 아니라니까... 등산할 때 하나씩 나누어주는 행동식이여, 빨리 내놓으셔~”

등산 갈 때마다 필요한 만큼 타 가라고 한다. 지금 북한에서 건빵 배급해?



모르겠다

지난주와 이번 주 내내 그녀가 코로나 비슷한 증세로 골골거린다. 병원에 갔는데 감기라면서 무슨 약을 여섯알씩이나 지어 주어서 “아이고매, 감기가 약을 이렇게 많이 먹어야 하는 중병이여?” 하면서 약 봉투에 적힌 성분표를 보면서 필요 없는 것은 빼고 세 알만 먹으라고 골라 주었다.

내내 밖에 식당에서 주로 칼국수를 사 먹었다. 딱히 뭐 먹을 게 없다.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또 칼국수...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하는 구만.

“미안혀유, 서방님 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몸이 아픈데 밥 챙겨줄 힘이나 있겠어? 관찮여~ 끓어 죽기밖에 더 하것어? 빨리 나아서 집밥 해주.”

작은딸이 본죽 ‘전복죽’ 티켓 하나를 보내 주어서 전복죽을 사다 먹었다. 그 아픈 와중에서도 죽 속에서 뒤적뒤적 ‘전복’을 열심히 찾았는데, 없네.



오늘도 무사히

새벽 3시에 문득 눈이 떠졌다. 뒤척이며 시간 보내느니 그냥 일어나 책방에서 2시간 동안 낮에 할 일을 미리 했다. 그리고 5시부터 <예수어록> 말씀 묵상을 하고 <햇볕같은이야기> 발송을 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아침 시간이 푹푹처럼 지나간 다음 이제야 한가한 시간이 되어서 커피 한잔 내려 들고 ‘하원’에 앉았다.

그녀는 지금 조치원에 교육을 받으러 가서 점심까지 먹고 온다고 나갔다. 베란다 정원 ‘하원’에 하염없이 앉아 있으니 솔솔 졸음이 왔다.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나보다.

깜짝 놀라 눈을 떴더니 1시간이 지났다. 여름이라 무성하게 자란 화초들 사이에서 졸다가 눈을 떠서인가? 갑자기 내가 정글 속에 온 것 같았다. 이미 새벽에 2시간 동안 미리 작업을 해놔서 딱히 급한 것은 없다. 다시 눈을 감았다.



금불초, 꽃이되다

‘꽃詩’를 쓰고 있다. 과거에 아내가 ‘꽃차(茶)’를 할 때 열심히 꽃을 따러 다니면서 꽃 이름을 많이 외웠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많이 잊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꽃>)

나는 시를 쓸 때 내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어떤 사실을 상상하여 머릿속으로 쓰지는 않는다. 그래서 꽃 시를 쓰려면 그 꽃을 봐야 한다.

그래서 요즘엔 동네 화단이며 산을 훑고 다니며 꽃이 보이는 족족 사진을 찍는다. 3단지 아파트 화단에서 ‘금불초꽃’을 만났을 때, “금불초야! 넌 이제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으니 비로소 꽃이 된거야~” 하고 말해 주었다.

나의 관심을 받은 금불초가 너무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



홍수 치수(治水)

잠결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천둥과 번개와 세차게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었다. 아마도 전쟁이 난다면, 하늘에서 이런 미사일 포탄 터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아침에 일어나니 핸드폰에 재난문자가 20개도 더 와 있었다.



우리동네에 집중호우로 강물이 범람하고 다리가 넘치고 난리가 나 있었다. 동학사 계곡은 1층 상가 지역이 물에 잠겼다. 와~ 그정도 까지 물이 찼다면 비가 많이 쏟아진 것 맞다. 금강에 나가보니 그 물을 다 받고도 거대한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우리동네는 과거 1946년 6월 26일 금강 홍수로 충청도 최대규모였던 대평우시장과 300여 호의 주택이 모두 사라지고 그후 대평동은 사람이 살지 않는 이름만 남은 동네가 된 역사가 있다.

세종시가 되면서 지금은 대평동 별판에 아파트가 가득 들어찼다.

뽕짝 소리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어디선가 아련하게 ‘쿵짝 쿵짝 쿵쿵 짹 쿵쿵 짹...’하는 뽕짝 리듬이 신나게 들렸다.

동네에 있는 ‘나이트 카바레’ 앞을 지날 때마다 안에서 “앗싸아~”소리와 함께 들리던 소리이다. 카바레 방음장치가 부실하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심장 박동이나 귀 주변 혈관의 혈류, 근육 경련이 리듬감을 가진 소리로 귀에서 느껴지는 ‘박동성 이명’이라는 것을 알았다. 카바레 방음장치가 아니라 내 귀가 문제였던 것이다.

지금은 심장약을 꾸준히 먹고 이명이 짹 사라졌다. 가 다시 귓속에서 ‘쿵짝 쿵짝’ 소리가 신나게 났다. 전보다 더 크게 났다. 약효가 떨어졌나? 하며 귀를 후비다가 잠을 잤다. 꿈이었다. 그런데 잠을 깨니 아무 소리도 안 난다. 뭐야 이거? 꿈과 현실이 막 뒤섞였네.

얼음냉수

30도 이상 올라간 기온으로 가만히 앉아 있지만 해도 덥다.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생수를 부어 ‘얼음냉수’ 한 컵 만들었다. 얼음이 버석버석 녹는 소리만 들어도 시원하다. 선풍기가 팡팡 돌아가는데 여기서 좀 더 온도가 올라가면 에어컨을.



2026년 5월부터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 스페인 안두하르 45.1°C. 프랑스 피소스 44.3°C 이로 인해 유럽에서 지금까지 1만명 이상이 사망. 유럽은 여름 평균 기온이 32°C가 고작인데다 습도가 낮아 열기가 머무르지 않아 밤엔 20°C 밑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이번 폭염은 지구온난화로 유럽 토양이 건조해지면서 증발 냉각 효과가 약해지고, 유럽 상공에 정체된 고기압이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사막의 뜨거운 공기를 끌어들이는 열돔 현상으로 분석.

갑자기 얼음냉수 한잔이 사치로 느껴지는구나.

제크

며칠 전에 아는 분이 줬다며 그녀가 ‘제대로 만든 크레커 -제크’ 한 상자를 들고 왔다. 왔었다. 온 것 같다. 그랬던 것 같다. 그러지 않았나?

뇌를 사용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포도당(탄수화물)이 막 땀긴다. 뇌는 체중의 약 2%에 불과하지만 하루에 소비하는 에너지의 20%를 사용한다. 그래서 포도당이 부족하면 집중력 저하와 피로감이 밀려온다. 지... 지금이야... 지금 막 밀려오고 있어...빨리 빨리...



문득 나의 뇌가 며칠 전 봤던 ‘제대로 만든 크레커 -제크’를 생각나게 했다. 역시 나는 뇌를 사용하는 게 분명해. 아내의 ‘도토리창고’에서 제크 한 줄을 꺼내 먹었다. 먹다 보니 금새 서너봉지를 먹어버렸다. 어? 갑자기 뇌가 현실 자각을 한다. 크... 큰일났다. 홈파트로 뛰어가서 제크 한 상자 사 와서 다시 넣어 놔다. 포장지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기를.

이재익 목사님

일본 니이가타교회 이재익 선교사님이 일본에서부터 날아왔다. 경주에서 집회를 마치고 서천 세종 장호원... 렌트카로 거의 전국일주를 하는 중에 그 바쁜 시간을 내서 우리집에 들리셨다.

사모님의 혹독한(?) 다이어트 감독으로 이전보다 몸이 많이 훌쩍해지시었도다. 그녀가 나보고 좀 본받으라고 잔소리를 퍼붓는다. 나는 체질이 둥글둥글한 태음인이라서 살을 빼도 기본적인 골격은 그대로라 살 빠진 티가 안 나니 조금 억울하다.

한국에 나온 그 잠깐 사이에 일본 니이가타에 갑자기 피부은 집중호우로 도로에 물이 차고 교회 성도들의 발이 묶여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경주와 대구에서는 40도에 육박한 기온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 외부활동을 강제로 못하게 한다고 한다. 전 세계가 이상기온으로 난리났다.



홍게라면

새벽 운동을 하고 들어온 그녀가 뜬금없이 “바다 보고 싶어요”

“바다? 그럼 빨리 준비하셔. 동해바다 보러 가자.” 그렇게 해서 갑자기 10분만에 집을 나섰다. ‘강구항 해파랑공원’ 네비에 찍고 출발했다. 영덕까지 240km 2시간 30분! 달려서 도착했다.

그럼처럼 잔잔하고 길게 꼬리를 남기며 지나가는 배도 보고 해안가에 파도치는 모습도 사진을 찍고... “바다 다 봤지? 이제 집에 가자”

“이쪽 동네에 ‘대게’가 유명하니 한 마리 먹고 갈까?” 대게 간판을 보고 들어갔다. “대게 1인분에 9만원입니다.” 억! 놀라서 슬그머니 나와 그 앞에 있는 라면집에 들어갔다. “홍게해물라면 34000원... 9만원 보다는 싸네.” 그리하여 대게국은 아니지만, 홍게국으로 비싼 라면 한 그릇 비웠다.

그리고 다시 240km 달려 집에 도착했다. 아내의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뭐든 ‘말’은 이루어진다. ©최용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제756회 국사봉-매봉-청벽산-진달산

이상호 목사님 송목사님 부부와 4명에서 7.2km를 총 3시간 18분동안 걸었다. 등산후 '귀빈돌술밥'에서 점심을 먹고 공주팀과의 산행은 오늘로 여름방학을 하고 선선한 가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영이 예민한 사람은 기운(奇雲)이 모이는 곳을 안다. 주로 무당들이 가장 잘 알고 기독교에서도 '영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운에 민감하다. 우리나라 무당들의 성지는 계룡산이며 계룡산 주변에 기운이 몰려 있는 곳이 몇 곳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국사봉 아래다.

나는 두 번 이곳을 지나 국사봉에 올랐는데, 두 번 다 길을 잃고 헤맸다. 오늘도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두 분 목사님'의 영력(?)으로 금방 길을 찾아 제대로 올라갔다. 여기는 진짜 이상한 곳이다. 혼자 가면 무엇인가 홀리는 곳이다. (2026.7.13)

▲제757회 비학산322 (일출봉252m) 2026.7.17

▲제758회 금만봉(755m 완주) 2026.7.25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같은 산우산반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을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010-3210-3210 최용은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① 불별더위 한창인데 벌써입추 가을시작

텃밭에 배추 씨 묻고

그대는 내 품을 파고드네.

-〈입추立秋〉 김용택

올여름처럼 에어컨을 많이 돌렸던 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로 이사 와서 처음 맞이하는 여름인데, 16층이라는 높은 공간의 영향인지 밤낮으로 30도 이하로는 기온이 안 떨어졌습니다. 에어컨을 돌려도 1-2도 정도밖에 안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이미 왔습니다.



② 표지사진 이야기

닭장 옆에 핀다고 하여 ‘닭의장풀꽃’이라고도 부르는 달개비꽃이 피었습니다. 닭이 꽃을 보고 흠짓 놀라며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번 먹어 보고는 너무 맛이 있어 또 먹고 싶다고 꼬꼬댁 꽃꽃꽃 했다는 닭의장풀꽃은 물기가 많은 고랑가에 주로 핀다. 속이 흰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투명하고 꽃 모양도 마치 장닭의 벼슬 모양처럼 멋집니다. 내 책방 창문 밖에 피었던 달개비꽃을 찍은 것입니다. (사진:최용우)

③ 도서출판 소식

■신간 〈회동-주님과 회동하는 삶〉(햇25) 316쪽(컬) 17000원 2026.7.24.퍼플

105권. 기도에 관한 153개의 글(필3) /180쪽(컬) 15000원 2026.6.29.퍼플

104권. 일상의 산책 (詩18) /210쪽(컬러) 17000원 2026.5.28.퍼플

103권. 만사록5권-지옥 /304쪽 16000원 2026.4.29.퍼플

102권. 누가 예수어록 /632쪽 28000원 2026.3.20.퍼플

101권. 시편으로 쓴 시편시 (詩17) /404쪽(컬러)27000원 2026.2.27.퍼플

100권. 하늘일기 (일기17) /396쪽(컬러)27000원 2026.1.30.퍼플

99권. 일상의 여유 (詩16) /210쪽(컬러)17000원 2025.12.22.퍼플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98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드러내기 -2026.7월 재정결산

2026년 7월(1-31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감사 강경희 강경희 김광현 김상식 김준경 김한빛 박근식 박기순 박승현
배지윤 양은희 양희창 오창근 옥치오 이기봉 이미라 이인숙 이재익 이진우
임대근 장기갑 정효숙 한주환 함안중앙교회 들꽃교회 안디옥교회 월간새벽기도
정릉교회 모두 29분이 거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비 이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사역 -인터넷신문 햇별같은이야기 2026.8.7일까지 8450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주보자료파일, 전도자료 발행

③출판사역 -그동안 106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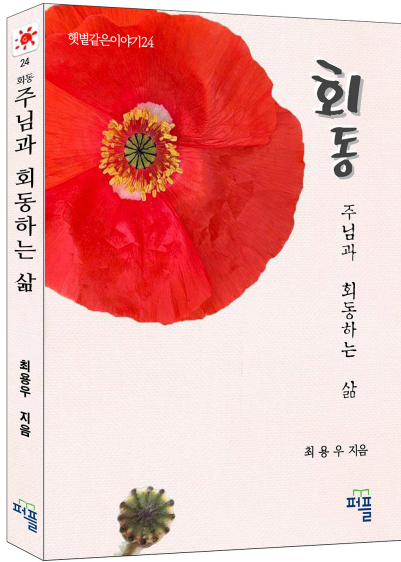
④기도사역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독거인,문서2,인터넷,북방선교2,선교사,난민)

⑥피정사역(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몇 년 동안 작은 휴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로 피정 사역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한번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기독교목회사역자들이 언제나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피정사역을 위한 특별 후원헌금 계좌 /우체국 100347-02-096053(이인숙))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새로 나온 책**

오! 주님
제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곳에 회동하소서!

<최용우 동행 시리즈>

1. 하동-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320쪽 14300원
2. 예동-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320쪽 14300원
3. 성동-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318쪽 15000원
- 4. 회동-주님과 회동하는 삶 /316쪽 17000원**

최용우 316쪽 17000원 퍼플

저는 지난 1년 동안 제 마음속 의자에 하나님께서 회동(會同)하시어 '임재(臨在)'하신 가운데,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과정을 열어주신 만큼 글로 풀어 썼습니다. 저는 어느 날 '동행'이라는 주제로 4권의 책을 써야겠다는 감동을 받았고, 드디어 4권의 책 마지막 글을 씁니다.

- ①구약을 읽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 ②4복음서를 읽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 ③예수부활승천 이후의 성경을 읽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 ④내 삶에 오셔서 동행하시는 -〈주님과 회동하는 삶〉

저는 4권의 책을 쓰면서 무한광대하신 하나님 이야기는 파면 팔수록 엄청난 보화가 쏟아지는 금광임을 다시한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가 회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어디든 그곳이 '회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오! 주님 제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제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다 해도 주님이 제 마음과 삶에 회동하셔서 임재하시니 제 인생은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입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밥상1-아침밥1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맛질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밥을 먹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매일 한 장씩 1년 동안 역대상 11장까지 묵상합니다.
14,100원 400쪽 퍼플



따뜻한 밥상2-아침밥2

하루동안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따뜻한 말솥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 거르면 몸이 상하듯 말솥 밥상도 거르면 안 됩니다. 밥 드세요 역대상 12장부터 예언서 전체를 1년 동안 묵상합니다.
17,300원 398쪽 퍼플



따뜻한 밥상3-점심밥1

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 -하루 한쪽 1분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단 순히 읽기만 해도 영혼에 양식이 되는 순수 말솥 중심 묵상집입니다. 시편 전체를 1년 동안 묵상합니다.
14,100원 400쪽 퍼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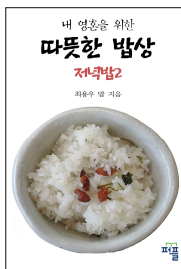
따뜻한 밥상4-점심밥2

묵상은 갈대기와 같아서 단순히 그냥 흘려 보내기만 해도 머리의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 갑니다. 변화는 머리로 되지 않고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1년 동안 묵상합니다.
14,100원 398쪽 퍼플



따뜻한 밥상5-저녁밥1

어린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 따라 신학적 교리적 조미료 치지 아니하고 있는 말솥 그대로 단순하게 읽은 쉬운 말씀묵상 마태복음-마가복음을 1년 동안 묵상합니다.
14,100원 400쪽 퍼플



따뜻한 밥상6-저녁밥2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어로 묵상하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았습니다. 누가복음-요한복음을 묵상합니다.
17,300원 398쪽 퍼플

여가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샬롬!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햇별같은이야기 <https://cyw.pe.kr>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숨터(피칭) <http://cyw.co.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150 세종시 보람1길12 호려울마을2단지 201동 1608호 들꽃편지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WildflowerLetter)제691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